

저자 (Authors)	金承璨 Kim, Sung Chan
출처 (Source)	코기토 27 , 1985.6, 1-16 (16 pages) Cogito 27 , 1985.6, 1-16 (16 pages)
발행처 (Publisher)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Institute of Humanit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887230
APA Style	金承璨 (1985). 安民歌 研究. 코기토, 27, 1-1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7 11:4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安民歌 研究

金 承 璨*

目 次

- | | |
|--------------|-------------|
| I. 序. | III. 忠 談 師. |
| II. 創作動因 | IV. 安 民 歌. |
| 1. 景德王代の 社會相 | V. 結. |
| 2. 景德王의 政治理念 | |

I. 序

景德王代の 忠談師가 王命에 의해 지은 安民歌와 그 서사 記述物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 현재까지 학계에 발표된 중요 논문은 다음과 같다

朴魯璋, 安民歌論攷(고려대 대학원 석사논문, 1967)

尹榮玉, 安民歌의 理解(語文學 32, 1975)

崔 喆, 安民歌研究(三國遺事의 文藝的 價値, 1982)

琴基昌, 忠談의 鄉歌 二篇에 對하여(국어국문한 87, 1982)

이들 논문에서 논자들이 주장하는 견해를 보면, 서사 기술문에 있어서 “五岳三山神等 時或現待於殿庭”의 현상을 尹榮玉교수는 凶兆가 아닌 것으로, 崔喆교수는 凶兆의 시현으로, 琴基昌교수는 왕이 神通力을 발휘한 인물임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安民歌에 대해서 朴魯璋교수는 경덕왕 시대가 전제왕권의 강화정책으로 말미암아 권력구조에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가 불안에 빠지자 民本主義思想에 입각하여 전제왕권의 질서체제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尹榮玉교수는 경덕왕 시대가 신라문화의 절정기임으로 利他的 大乘의인 彌勒思想에 發想의 바탕을 두고 하나의 現實相을 그린 것으로, 崔喆교수는 경덕왕 당시 나라에 심상치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으로 국가 안위를 위해 치국에 관한 정치적·사회적 理道를 밝힌 노래로, 琴基昌교수는 仁義禮智信의 五常의 德 즉 仁義의 德에 기초를 둔 政治理念을 노래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필자는 위의 네 논문을 참조하면서, 안민가의 창작·동인과 총담사의 위치 및 안민가에 내재한 사상을 천착하고자 한다.

* 人文大 副教授(國文學)

II. 安民歌의 創作動因

1. 景德王代의 社會相

안민가의 창작 동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景德왕대의 사회 제반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안민가의 창작 동인이 사회 제반상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먼저 三國遺事의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條에서 安民歌를 고구하는데 필요한 기사만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王御國二十四年 五岳三山神等 時或現侍於殿庭 三月三日 王御歸正門樓上 謂左右曰 誰能途中得一員榮服僧來 於是適有一大德 威儀鮮潔 徜徉而行 左右望而引見之 王曰 非吾所謂榮僧也 退之 更有一僧 被衲衣負櫻筒(一作荷簞)從南而來 王喜見之 邀致樓上 視其筒中 盛茶具已 曰 汝爲誰耶 僧曰忠談 曰 何所歸來 僧曰 僧每重三重九之日 烹茶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 今茲既獻而還矣 王曰 寡人亦一盃茶有分乎 僧乃煎茶獻之 茶之氣味異常 甌中異香郁烈 王曰 朕嘗聞師讀善婆郎詞腦歌 其意甚高 是其果乎 對曰然 王曰 然則爲朕作理安民歌 僧應時奉勅歌呈之 王佳之 封王師焉 僧再拜固辭不受 安民歌曰

君隱父也	君은 아버지
臣隱愛賜'母史也	臣은 득스살 어시어
民焉狂尸恨阿古爲賜尸知	民은 얼흔 아히고 흑살디
民是愛尸知古如	民이 득술 알고다
窟理叱大勝生以支所音物生	구름스다히 살손 物生
此躬噉惡支治良羅	이홀 머기 다스라
此地躬捨遭只於冬是去於丁 爲尸知	이싸홀 버리곡 어의 갈너홀디
國惡支持以 支知古如	나라악 더니디 알고다
後句	아으
君如臣多支民隱如 爲內尸等焉	君다이 臣다이 民다이 흑놀든
國惡太平恨音叱如	나라악 太平흑니었다.

(梁柱東譯)

이 기사물 가운데 사회 제반상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기술은 “王御國二十四年 五岳三山神等 時或現侍於殿庭”뿐이다. 이 五岳三山神의 現侍를 符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瑞徵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景德왕대의 사회 제반상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사건들을 간추려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당시 국민들이 정치행위와 상관관계를 짓고 있다고 관념하였던 自然異變의 계양상을景德왕 在位 동안에 발생 하였던 것만 뽑아 연차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二年 春三月 主力公宅 牛一產三犢, 秋八月 地震.
 三年 冬 妖星出中天 大如五斗器 浹旬乃滅.
 四年 夏四月 京都雷 大如鷄子, 五月 旱, 中侍惟正退 伊漬大正爲中侍.
 六年 三月 震眞平王陵, 秋 旱, 冬 無雪, 民饑且疫 出使十道安撫.

- 七年 春正月 天狗落地.
 八年 春三月 暴風拔木.
 十二年 秋八月 武珍州 獻白雉.
 十三年 夏四月 京都雹 大如鷄卵, 五月 牛頭州獻瑞芝, 八月早·蝗, 侍中朝良退.
 十四年 春 穀貴民饑 …… 望德寺塔動, 秋七月 赦罪人, 存問老疾鰥寡孤獨 賜穀有差, 以伊准金耆爲侍中.
 十五年 春二月 上大等金恩仁以比年災異屢見 上疏極論時政得失 王嘉納之, 夏四月 大雹, 大永郎獻白狐 援位南邊第一.
 十七年 秋七月二十三日 王子生, 大雷電 震佛寺十六所.
 十八年 三月 彗星見 至秋乃滅.
 十九年 春正月 都城寅方有聲如伐鼓 衆人謂之鬼鼓.
 [庚子 四月朔 二月並現 挾旬不滅 一 三國遺事]
 二十年 春正月朔 虹貫日 日有珥, 夏四月 彗星出.
 二十二年 秋七月 京都大風 飛瓦拔樹, 八月 桃李再花, 上大等信忠 侍中金齒免.
 二十三年 三月 星孛于東南, 龍見楊山下 俄而飛去, 冬十二月 十一日 流星或大或小 觀者不能數.
 二十四年 夏四月 地震, 六月 流星犯心, 是月王薨.

위의 천재지변을 유형별로 보이면 다음 도표와 같다.

天 災				地 變			
天 變	彗星(星孛)	3	8 [1]	地 變	地震(震寺·震陵)	4	5
	流星	1			塔動	1	
	天狗落地	1		禽 獸 變	白狐	1	3
	流星犯心	1			白雉	1	
	妖星	1			產三槽	1	
	虹貫日 日有珥	1		蟲 變	蝗	1	1
	[二日並現]	[1]			樹 變	桃李再花	1
天 災	旱	3	10	人 變	瑞芝	1	1
	大風(拔樹)	2			疫疾	1	
	雷電	1		雜 變	鬼鼓聲	1	2
	雹	3			龍飛	1	
	無雪	1					

위의 자연이변 가운데 금수변과 수변의 瑞芝의祥瑞이외는 모두 咎徵에 속한다. 특히 天變의 妖星(왕 3년 겨울)·彗星(왕 18년 3월, 20년 4월, 23년 3월)·二日並現(왕 19년 4월)·虹貫日(왕 20년 1월)·流星犯心(왕 24년 6월)과 天災의 大風(왕 8년 3월, 22년 7월) 및 地變의 地震(왕 2년 8월, 6년 3월, 17년 7월, 24년 4월)·塔動(왕 14년 봄), 樹變의 桃李再花(왕 22년 8월)는 凶兆 가운데서도 준귀자의 사망·왕권의 성쇠·국가의 재난(謀叛이나 戰爭)

과 직결되는 咎徵이다. 그래서 경덕왕 15년 2월에 上大等 金思仁이 매년 災異가 나타남을 보고 上疏하여 時政의 得失을 극론하게 되었고, 왕은 이 자연의 이변(咎徵)에 대한 대응책으로 中侍의 교체를 4번(왕 4년 5월, 13년 8월, 19년 4월, 22년 8월)이나 단행하게 되었으며, 죄인에 대한 大赦·백성에 대한 安撫(出使安撫)·老疾鰥寡孤獨者에 대한 存問과 賜穀有差(巡問百姓)의 정책을 베풀었던 것이다. 특히 天災·凶作에 따른 賑恤과 慰勞가 왕의 권력 유지의 방편으로써의 善心政策의 하나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유교적 왕도사상 내지 불교적 호국사상에 바탕을 둔 爲民·愛民政策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다. 이는 경덕왕의 정치이념으로서 충분히 추량할 수 있는 것이다.

하여튼, 경덕왕대의 자연이변은 불경에서 말하고 있는 正法을 잃은 시대의 현상과 방불한 것이다.

爾時 四天王 俱共合掌白佛言 世尊 若有人王於其國土 雖有此經 未常流布 心生捨離 不樂聽聞 亦不供養尊重讚歎 見四部衆持經之人 亦復不能尊重供養 遂令我等 及餘眷屬無量諸天 不得聞此甚深妙法 背甘露味 失正法流 無有威光及以勢力 增長惡趣 損滅天人 墜生死河 乘淠繫路。

世尊 我等四天王并諸眷屬及藥叉等 見如斯事 捨其國土 無擁護心 非但我等 捨棄是王 亦有無量守護國土諸大善神 悉皆捨去既捨離已 其國 當有種種災禍 喪失國位 一切人衆 皆無善心 惟有繫縛熬害讎諍牙 相讒詔 枉及無辜 疾疫流行 彗星數出 兩日並現 博蝕無恒 黑白二虹 表不祥相 星流地動 井內發聲 暴雨惡風 不依時節 常遭飢饉 苗實不成 多有他方怨賊侵掠 國內人民 受諸苦惱 土地無有可樂之處 世尊 我等四王及與無量百千天神 并護國土諸善神 遠離去時 生如是等無量百千安怖惡事¹⁾

이와 같이 호국 佛經(仁王經이나 金光明經系)을 廣布하지 않고 듣기를 즐거워 하지 않으며 공양하지 않고 존중·찬탄하지 않으면 四天王을 비롯하여 그의 모든 권속과 야차들이 호국할 뜻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며, 그 결과 나라 안의 백성들 사이에는 갈등과 非理가 橫行하게 되고 疾疫流行·彗星出現·二日並現·暴雨惡風 등의 天災地變이 심히 일어나며 怨賊의 侵掠이 있는 등 백천 가지 재해와 괴변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경덕왕은 이러한 자연이변을 퇴치하기 위해 왕 12년(753) 여름에 날이 몹시 가물자 大賢을 內殿으로 불러 들여 金光明經을 講하고 단비가 내리도록 빌게 하였으며, 왕 15년(756) 2월 上大等 金思仁의 時政得失의 上疏가 있는 뒤 당시 전제정치를 비판하는 貴族官僚와의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16년(757) 3월에 이르러 祿邑制를 부활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경덕왕대의 정치상황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각 侍中 재임기간에 일어난 咎徵의 자연이변현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金光明最勝王經 四天王護國品

侍 中	자 연 이 변	개 혁
信 忠(孝成3년 1월~ 경덕2년 12월)	地震	
惟 正(왕3년 1월~ 왕4년 5월)	妖星出現, 雹, 旱	
大 正(왕4년 5월~ 왕8년 12월)	震眞平王陵, 旱, 無雪, 疫疾, 天狗落地, 暴風	內司正典설치(왕5년), 偵察설 치(왕7년)
朝 良(왕9년 1월~ 왕13년 8월)	雹, 旱, 蝗.	東宮衙설치(왕11년).
金 壽(왕14년 7월~ 왕16년 12월)	雹	祿邑制부활(왕16년), 州郡縣名 漢式化(왕16년)
廉 相(왕17년 1월~ 왕19년 4월)	雷電, 震佛寺十六所, 彗星, 鬼 鼓聲, 二日並現.	兵部改革과 官府位階改名(왕18 년)
金 瓘(왕19년 4월~ 왕22년 8월)	虹貫日, 彗星, 大風, 桃李再花	
良 相(왕23년 1월~ 憲恭4년 9월)	星孛, 龍飛去, 流星(地震, 流 星犯心)	

위의 도표에서 良相 在任時 일어난 地震, 流星犯心의 현상은 경덕왕 사망을 豫示한 凶兆이므로 이 두 자연이변현상을 제외하면, 咎徵의 자연이변현상은 大正·廉相·金瓘·良相 在任時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국가위난의 咎徵을 보이는 天變인 彗星出現·二日並現·虹貫日현상·桃李再花현상이 廉相·金瓘·良相의 재임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아 이때 專制王權의 庇護神인 五岳三山神²⁾들이 장차 있을 국난을 미리 알려 주기 위해 殿庭에 現侍한 것일 것이다.

廉相은 憲恭 11년 8월에 侍中 正門과 더불어 모반하다가 伏誅된 인물이고, 金瓘은 統一新羅期 專制王權의 붕괴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인물이며³⁾ 良相은 憲恭 16년 4월에 志貞이 모반하자 伊滄 敬信과 더불어 군사를 일으켜 그를 誅殺함과 아울러 王을 弑殺하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다. 이들은 侍中 재임시에 太子 乾運이 탄생하여⁴⁾ 어리고, 경덕왕 역사 보위에 올라 治政한 지 16년이 경과되면서 好樂생활에 침잠하자 왕권에 도전할 反心을 품고 왕의 政事를 補佐했기 때문에 五岳三山神의 現侍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덕왕 御國 24년 사이에 五岳三山神의 現侍가 매년 있는 것이 아니라 왕 말기의 세 侍中이 재임할 때 장차 있을 국난의 예고로 있었던 것이라 풀이해야 온당할 것이다. 이는 憲康王代(875 ~

2) 三山神은 신라 호국신이요, 五岳이 신라 통일과 더불어 성립한 전제 왕권의 상징이라면 五岳神은 專制王權 비호신일 것임(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7, p. 215참조).

3) 金壽泰, 統一新羅期 專制王權의 崩壞와 金瓘, 歷史學報 99, 100合輯, 1983, p. 145.

4) 경덕왕 17년 7월 23일 탄생. 당시 경덕왕의 나이는 35세.

885)에 鮑石亭에서의 南山神(祥審)·金剛嶺에서의 北岳神(玉刀鈴)·同禮殿 宴會時에서의 地神(地伯級干) 등이 왕의 앞에 나타나 獻舞를 한 일이 있는 뒤 반세기만에 신라가 망하였듯이, 武烈王系의 庇護神인 三山五岳神의 殿庭 現侍가 경덕왕 말기에 더러 있는 뒤 약 20여년만에 武烈王系의 惠恭王이 奈勿王系의 金良相에게 왕위를 빼앗겼음을 고려하면, 경덕왕 말기의 五岳三神의 現侍는 경덕왕의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咎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三國遺事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條의 “王御國二十四年 五岳三山神等時或現侍於殿庭”의 기사는 경덕왕 말기에 나타난 咎徵이되, 경덕왕 통치기간중 한 건의 謀逆亂도 일어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武烈王系의 전제왕정을 비호하던 五岳三神들이 강력하게 중앙 집권적 전제정치를 수행하던 경덕왕에게 그의 정책을 비판하고, 당시 왕당파와 반왕당파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敎示하기 위해 現侍한 것이 아니라, 惠恭王代에 있을 貴族들의 大反亂으로 武烈王系의 專制王權이 붕괴될 것임을 미리 가르치기 위해 나타난 咎徵의 기사인 것이다.

2. 景德王의 政治理念

신라시대에 있어서 神文王이 확립한 중앙집권적 專制王權을 유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景德王의 정치이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왕의 통치기간 내에 이룩한 治績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왕의 치적을 유형별로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佛事

1. 왕 4년(745) 4월 8일에 禺金里의 寶開가 아들 長春이 海商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므로 敏藏寺의 관음앞에 7일간 정성껏 기도를 드리니, 아들이 홀연히 돌아왔다. 이에 왕이 이 일을 듣고 敏藏寺에다가 施田하고 財幣를 獻納하였다. (遺事 敏藏寺)
2. 왕 5년(746) 4월에 150인을 중으로 만들었다. (三國史記)
3. 왕 11년(752)에 眞表가 地藏菩薩의 淨戒를 받고 다시 靈山寺에서 慈氏를 정진하다가 懶勒으로부터 占察經 2권과 證果簡 189개를 받았다. 그뒤 阿瑟羅州에 이르러 壇席을 열고 法施를 베풀니 高嶼間的 魚髓이 다리를 놓고 水中으로 맞아 들어 法을 講케 하고 戒를 받았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眞表를 궁중으로 맞이하여 菩薩戒를 받고 租 77,000 석을 주었다. (遺事 眞表傳簡)
4. 왕 12년(753) 여름, 날이 몹시 가물자 왕은 大賢을 내전으로 불러 들어 金光經을 강하고 단비가 내리도록 빌게 하였다. (遺事 賢瑜珈 海華嚴)
5. 왕 13년(754) 官吏에게 명하여 永興寺와 元延寺의 두 절을 수리하게 하였다. (三國史記)
6. 왕 13년(754) 여름, 法海를 皇龍寺에 초청하여 華嚴經을 강하게 하고, 왕도 친히 거동하여 분향의 예를 행하였다. (遺事 賢瑜珈 海華嚴)

7. 聖德王 8년 4월 8일에 白月山 齋房에서 열심히 마루를 찾던 努勝夫得이 관음의 화신인 娘子의 도움으로 成佛하였고, 板房에서 미타를 염송하던 恒恒朴朴이 夫得의 지시를 따랐더니 成佛하였다. 경덕왕이 이 일을 전해 듣고 丁酉年(왕 16년, 757)에 使者를 白月山에 보내어 白月山 南寺를 창건케 하고, 미륵존상을 금당에, 미타상을 講堂에 안치시켰다. (遺事, 南白月二聖 努勝夫得 恒恒朴朴)
8. 왕 19년(760) 4월 초하루 날에, 하늘에 해가 두 개 나타나 挾旬 동안 없어지지 않자, 왕이 靑陽樓에 행차하여 月明師를 맞아 朝元殿에서 散花功德의 行法을 가졌다. (遺事, 月明師 兜率歌)
9. 왕 23년(764)에 剌妙寺의 丈六塑像을 改金하였는데, 비용으로 租가 23,700석이었다. (遺事, 剌妙寺丈六)
10. 왕이 柏栗寺에 가다가 그 절이 있는 산 밑에 이르러 땅 속에서 唱佛하는 소리를 듣고 땅을 파보게 하였더니 거기에 4면을 둘러가며 四方佛이 조각된 돌⁵⁾이 있어 그 자리에 掘佛寺를 세웠다. (遺事,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
11. 왕은 당나라 代宗皇帝가 불교를 무척 숭상한다는 소식을 듣고 萬佛山을 만들어 바쳤다. (遺事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
12. 왕은 先考 聖德王을 위하여 黃銅 12萬斤을 희사하여 巨鍾 1口를 鑄成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遺事 皇龍寺鍾 芬皇寺樂師 奉德寺鍾)
13. 왕이 實際寺의 중 迎如를 맞아 供養코자 청하여 舘 내에서 齋를 베풀었는데, 迎如는 齋를 베풀고 절로 돌아가자 행적이 묘연했다. 이에 왕이 怪異히 여겨 國師로 追封하였다. (遺事 迎如師)
14. 왕 10년(751)에 金大城이 현세의 양친을 위해 佛國寺를, 전세의 양친을 위해 石佛寺를 짓기 시작하였다. (遺事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이 외에 경덕왕 시대에 있었던 佛事로서는 왕 13년(754)의 皇龍寺鍾 鑄成, 왕 14년(755)의 芬皇寺 樂師銅像 鑄成, 왕 말년의 李純의 斷俗寺 創建 등이 있고, 冥異譚으로서 希明의 盲兒得明, 郁面婢의 西昇, 布川山 五比丘의 西昇 등이 있다.

(4) 官府部署의 改革

1. 왕 4년(745) 7월에 司正府(官吏監察사무 관부)·少年監典·穢宮典을 두었다.
2. 왕 5년(746)에 內司正典을 설치하여 議決 1명, 貞察 2명, 史 4명을 두었다.
3. 왕 6년(747) 정월에 中侍를 고쳐 侍中이라 하였고, 國學의 諸業에 博士와 助教를 두었다.
4. 왕 7년(748) 8월에 처음으로 偵察 1명을 두어 百官을 糾正하였다.

5) 西方: 彌陀三尊, 東方: 藥師如來, 北方: 如來像, 南方: 2軀의 菩薩像으로 되어 있음(新羅의 廢寺 I, 一志社, 1974, 1980, p. 80.).

5. 왕 8년(749) 3월에 天文博士: 1명과 漏刻博士: 6명을 두었다.
6. 왕 9년(750) 2월에 御龍省(近侍직무 관부)에 奉御 2명을 두었다.
7. 왕 11년(752) 8월에 東宮衙를 설치하고 上大舍 1명, 次大舍 1명을 두었고, 10월에 倉部(國庫사무 관부)에 史 3명을 더 두었다.
8. 왕 16년(757) 8월에 調府(貢賦事務 관부)에 史 2명을 더 두었고, 12월에 沙伐州를 비롯한 9州的 이름을 漢式으로 개명하고 그 郡縣의 수를 줄이었다. (郡120→117, 縣305→293)
9. 왕 17년(758) 4월에 階官 精究者를 뽑아 內供奉으로 충당하고 律令博士 2명을 두었다.
10. 왕 18년(759) 정월에 兵部의 改革을 단행하고 官府의 이름과 職制位階의 이름을 고치었다.

(나) 修宮·築城

1. 왕 4년(745) 7월에 東宮을 수리하였다.
2. 왕 7년(748) 8월에 太后가 永明新宮으로 이주하였다. 한편 阿僧·貞節 등을 파견하여 北邊을 檢察하고 처음으로 大谷城 등 14郡縣을 설치하였다.
3. 왕 16년(757) 7월에 永昌宮을 수리하였다.
4. 왕 19년(760) 2월에 宮中에 大池를 파고, 또 宮의 남쪽 蚊川 위에 月淨·春陽의 두 다리를 놓았다.
5. 왕 21년(762) 5월에 五谷城·鶴巖城·漢城·獐塞城·池城·德谷城을 築造하고 각각 太守를 두었다.

위의 경덕왕 治績을 일별해 보면, 왕은 연년이 일어나는 자연이변 등 국가적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佛力에 의존한 나머지 佛事에 많은 정력을 쏟았음을 헤아릴 수 있다. 즉 왕은 布施(①)·度僧(②)·佛僧供養(③)·佛力에 의한 護國行事(④, ⑧)·寺刹創建과 修理(⑤, ⑦, ⑩)·佛經講會(⑥)·佛像改金(⑨)·巨鍾 鑄成(⑫)·名僧의 國師追封(⑬) 등의 불사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왕 10년에 金大城이 佛國寺와 石佛寺를 創建하기 시작하자, 그 사찰이 완성될 수 있도록 勞役을 도와 주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경덕왕은 護佛로써 나라를 護持하고자 佛事에 큰 관심을 두고 많은 치적을 남겼던 것이다.

(나)의 官府部署의 개혁을 보면, 경덕왕이 宮廷官署에 內司正典·少年監典, 穢宮典·東宮衙 등의 설치와 御龍省·倉部·調部에 관원의 增員을 단행한 것은 專制王權의 강화에 목적이 있었을 뿐 아니라, 강력한 秘諳政治를 구현하고자 했음을 추량할 수 있다. 특히 偵察을 두어 百官을 糾正케 했음은 反政·非理 관료에 대한 肅正에 목적이 있었을 것이며, 州郡縣의 漢字式改名과 郡縣의 再調整 및 兵部의 改革과 官府職制名의 改稱은 漢化政策에 따른 王權 專制化의 노력의 일 단이라 간주된다.

(대)의 修宮·築城의 시기를 보면, 거개 農閑期에 人力을 동원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덕왕의 爲民·勸農策의 한 구현으로, 農繁期에는 백성으로 하여금 作農에 전념케 함으로써 인력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라 풀이된다.

그리고 北邊의 大谷城 등 14郡縣 설치와 五谷城을 비롯한 6城의 築造는 왕의 영토 보존의 신념과 북방 경영(농토의 확대와 인력 자원의 확보)에의 의지를 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申滄植 교수는 경덕왕의 북방 경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祿邑의 부활이 貴族勢力의 반발을 둔화시켜 王權構築을 꾀하려는 정치적 포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러한 北方 經營도 결국 표면상으로는 國方이라는 정책적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내면으로는 우선 農土의 확대와 농민생활 기반을 강화하려는 爲民·勸農策의 일환일 것이다. 동시에 中代 王權을 지지해 줄 배후세력의 양성 또는 王室에 반발하는 貴族의 견제를 꾀하려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⁶⁾

경덕왕의 북방 경영책을 정치적 의미면에서 申滄植 교수가 해명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나, 경덕왕의 영토 보존의 신념이나 유교와 불교에 바탕을 둔 爲民·愛民의 사상을 다소 소홀히 취급한 것은 미흡한 느낌을 준다.

경덕왕이 왕 15년에 上大等 金思仁이 上疏한 時政得失의 極論을 嘉納한 것이나, 왕 22년에 大奈麻 李純이 王이 好樂한다는 말을 듣고 斷俗寺에서 宮門으로 찾아와 간하자, 好樂을 정지하고 그를 궁전으로 불러 들여 王道의 妙理와 治世의 方法을 며칠동안 경청한 것이나, 忠談師를 歸正門 樓上으로 영접하고 安民歌를 짓게 한 것은 다 爲民·愛民의 사상에 기인한 것이다.

佛經에 의하면 나라 안에 朋黨이 생겨 어지러울 때 왕은 大德 沙門의 자문을 얻으라고 하였다.

大王 當知 若有二衆朋黨諍訟 依破戒 依邪見 依顛倒邪行 依種種邪命 起種種異諍 種種異說 種種異語 行法行王 若自知法 若自知義 應當如法 斷彼諍事 若彼國王 闇鈍無知 不自知法 不自知義 不知正法 不知邪法 不知如法衆 不知非法衆 不知如法語 不知非法語 爾時 彼王 應問 國內大德沙門 知法 知義 有大智慧 常行正法 利益衆生 善知斷諍能如法語者 問其正法 知犯非犯 如是知己 然後 如法爲滅彼諍 大王 當知 如是名爲行法 治彼邪命衆生之罪⁷⁾

경덕왕의 時政得失의 極論 嘉納이나 忠諫의 傾聽, 安民歌의 창작 등은 위와 같은 大薩遮尼乾子所說經 王論品에서 설한 바 爲民·愛民의 王道를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大薩遮尼乾子所說經은 元曉의 法華經宗要·涅槃經宗要·無量壽經宗要 등에 引用書로 등장⁸⁾됨을 보아 護國三部經(仁王經·金光明經·法華經)과 더불어 신라시대에는 護國의 經典으로 護持되고 流布되었을 것

6) 申滄植, 三國史記研究, 一潮閣, 1981, p. 62.

7) 大薩遮尼乾子所說經 王論品 第五之二.

8) 安啓賢, 元曉 著書에 보이는 引用書의 一整理, 東國史學 3 집, 1955.

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경덕왕도 전제왕권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교의 왕도정치를 구현하기 에 전력을 기울였던 바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 오게 되었고, 따라서 찬연한 불교문화를 꽃피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경덕왕은 先考인 聖德王의 偉業을 追慕한 나머지, 聖德王이 왕 10년(711) 11월에 人臣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誠命들을 적은⁹⁾ 百官箴을 지어 군신에게 준 것처럼 자기도 왕당파와 반왕당파의 갈등으로 사회가 불안해지고 천재지변이 빈번히 일어나자 국가의 안정을 위해 忠談師를 시켜 君·臣·民이 자기의 직분을 다할 것을 노래한 安民歌를 짓게 하였던 것이고, 또 聖德王碑를 세우고(754) 奉德寺鍾(聖德王을 위해 黃金 12萬斤을 희사하여 鑄成한 것)을 鑄造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같이 전제왕권의 社會體制를 공고히 견지하면서 善政을 베풀었던 경덕왕은 그 말기에 이르러 貴族官僚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神文王 9년(689) 정월부터 폐지하였던 祿邑制를 왕 16년(757) 3월에 다시 환원·실시케 함으로 해서 귀족의 세력신장의 기반을 제공해 준 셈이 되었고, 그 결과 惠恭王 4년(768) 7월의 一古漬 大恭의 叛亂과 王都 및 五道州郡의 96角F이 相戰하는 大亂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덕왕의 정치 治績을 개관한 바에 의하면, 왕의 이념은 聖德王의 遺業을 이어 專制王權을 유지하기에 심혈을 기울이면서도 유교의 왕도정치·불교의 호국정신에 입각한 爲民·愛民의 정치이념이었으며, 그 결과 불교문화를 꽃 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

Ⅲ. 忠 談 師

安民歌의 作者 兪坦사에 대하여 학계의 일부에서는 師의 行적 시말이 실존인물과는 여러 모로 다르기 때문에 設화상에서 형성된 作意的인 가공인물로 보자는 견해와 경덕왕대에 왕에게 직접 忠諫하였던 李純으로 보자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전자의 견해는 崔喆교수가, 후자의 견해는 金善琪교수가 제기하였다.

崔喆교수는 안민가를 古來로 전승되어 내려왔던 治理의 노래로 규정하고,¹⁰⁾ 이어 가요 작품의 내용과 배경설화가 작자의 이름과 서로 연관성을 띠고 있는 점을 보아 兪坦사는 일종의 設화상에서 형성된 作意的인 가공인물일 것¹¹⁾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朴魯堉교수는

史記에 등장하는 寵臣 李純이 실존했던 인물인 이상, 또 景德王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정국을 正常軌道 위에 올려 놓으려고 몸부림친 것이 사실인 이상, 安民歌 작자인 忠談도 실존했던 인물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¹²⁾

라 하였다. 필자 역시 忠談師를 실존했던 인물로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忠談의 이름이 三國遺事의 篇目名에 表訓大德과 나란히 기재되어 있고,¹³⁾ 둘째 三國遺事의 生義寺石彌勒條에도

9) 李基白·李基東 共著, 韓國史講座 I, 一潮閣, 1982, p.310.

10) 金烈圭·中東旭編, 三國遺事의 문예적 가치, 새문社, 1982, p. 35.

11) 金學成·權斗煥編, 古典詩歌論, 새문社, 1984, p. 148, p. 144.

12) 朴魯堉, 新羅歌謠의 研究, 悅話堂, 1982, p. 32.

13) 鑄千手大悲歌가 등장되는 篇目名은 “芬皇千手大悲 盲兒得眼”을 보아 希明은 본 이름이 아님.

“後名生義寺”의 註에 “今訖言性義寺 忠談師每歲重三重九 烹茶獻供者 是此尊也”라 하여 충담의 이름이 등장되기 때문이다. 金善琪교수는 충담을 李純으로 보고자 하였다.

왕 15년(756)에 上大等 金思仁이 政事의 득실을 극론한 것이나, 22년(763)에 大余麻 李純이 임금의 逸樂을 極諫하여 風流 즐거움을 막은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이 安民歌는 임금에게 忠諫한 忠談師, 곧 孔宏長老 李純이 理世之方으로 백성을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것이 나라 다스리는 大本임을 노래 부른 것이다.¹⁴⁾

金교수의 견해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李純에 대한 기록을 보자.

大余麻李純爲王寵臣 忽一旦避世入山 累徵不就 削髮爲僧 爲王創立斷俗寺居之 後聞王好樂 卽詣宮門 諫奏曰 臣聞 昔者桀紂荒于酒色 淫樂不止 由是政事凌遲 國家敗滅 覆轍在前 後車宜戒 伏望大王改過自新 以永國壽 王聞之感歎 爲之停樂 便引之正室 聞說道妙 以乃理世之方 數日乃止

(三國史記 景德王 22年 8月條)

景德王代 有直長李俊高僧傳 作李純 早曾發願 年至知命 須出家創佛寺 天寶七年戊子 年登五十矣 改創槽淵小寺爲大刹 名斷俗寺 身亦削髮 法名孔宏長老 住寺二十年乃卒

(三國遺事 信忠掛冠條)

위 두 기사에 의하면, 大余麻 李純(李俊)은 경덕왕의 寵臣이었는데, 일찍이 發願하여 나이 知命(50才)에 이르면 出家하여 佛寺를 세우겠다 하더니, 경덕왕 7년(天寶 7年, 748) 그의 나이 50세가 되자 出家하여 머리를 깎고 法名을 孔宏長老라 하면서 南岳(지금의 경남 산청군 단성면 지리산 동쪽)의 槽淵寺에 들어가 왕을 위해 斷俗寺로 改創하고 거기서 20년간 살다가 죽었다. 그는 왕이 여러번 불러도 나오지 않다가 뒷날 왕이 好樂한다는 말을 듣고 왕 22년(763)에 宮門으로 찾아 가서 忠諫을 하였고,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감탄하여 好樂을 정지하고 그를 正室로 불러 들였으며, 거기에서 며칠간 王道의 妙理와 理世의 大方을 얘기한 인물이다. 그렇다면 李純이 충간을 하였다고 해서 곧 충담사라 할 수 있을까?

忠談師에 관한 단편적 기록은 앞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三國遺事의 紀異篇에 있는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條와 同書 塔像篇에 있는 「生義寺石彌勒」條뿐이다. 이 두 기록에 의하면, 충담사는 남산 三花嶺의 미륵세존(生義寺의 石彌勒)을 숭앙하여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茶粥 끊어 바치던 王都에 살던 郎僧으로서, 어느 해 3월 3일에 榮服僧으로부터 治國理民의 大方을 구하고자 歸正門¹⁵⁾ 樓上에 臨御한 왕과 우연히 처음 邂逅하게 된 인물이다.

李純이 곧 忠談이었다면, 왕은 李純을 익히 알던 티이라 그를 보고 “네가 누구냐? (汝爲誰耶)”라고 결코 묻지도 않았을 것이고, 李純 역시 欺君하면서까지 “忠談이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왕과 李純과의 관계는 李純이 홀연히 세상을 피하여 南岳에 들어 갔을 때

14) 金善琪, 安民歌, 現代文學 148호, 1967, p. 281.

15) 安吉陳其實 老人曰 汝去宮城之西歸正門 待宮女出人者告之(三國遺事 文虎王法敏條).

왕은 수차 그를 나오도록 불렀고, 李純은 南岳에 있는 槽淵小寺를 斷俗寺로 改創하여 왕의 福을 빌었을 뿐 아니라 왕이 말년에 好樂한다는 말을 듣고 직접 宮門으로 찾아가 忠諫을 하였던 그런 친근한 사이였으므로 歸正門 樓上에서의 “E曰 汝爲誰耶, 僧曰忠談”이라는 대화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李純이 곧 忠談이라는 견해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러면 忠談은 어떤 인물인가? 그는, 첫째 뜻이 높은 讀善婆郎詞腦歌를 지은 것으로 보아 詞腦歌 창작의 大家인 동시에 節義있는 화랑을 모셨던 郎僧이었으며, 둘째 “被納衣 負櫻筒”하였음을 보아 元曉나 惠空처럼 儉素한 佛子生活을 신조로 한 승려였으며, 셋째 “每歲重三重九之日 烹茶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으로 보아 彌勒世尊을 숭앙한 승려였고, 넷째 왕이 그를 王師로 봉하려 하자 固辭不受한 점으로 보아 권위나 권좌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고매한 인격자이며, 다섯째 그가 지은 安民歌의 내용으로 보아 愛民思想을 지녔던 지성인이었다.

IV. 安 民 歌

안민가는 경덕왕이 어느해 3월 3일 歸正門 樓上에 臨御하여 榮服僧을 맞아 治國理民의 大方을 듣고자 하였다가 우연히 忠談을 만나보게 되었고, 그가 사체가 작가의 대가임을 확인하고서는 그에게 治國理民의 노래를 지어 달라 청한데서 얻어진 노래이다.

이 노래의 창작 연대에 대해서는 왕 22년설(金善琪), 왕 24년설(朴魯堉, 趙東¹⁶⁾), 왕 말년설(崔喆), 왕 재임시기설(尹榮玉) 등이 있다. 이들 견해 중 왕 22년설은 李純이 忠談일 것으로 본 것에서, 왕 24년설은 “王御國二十四年”을 “왕이 나라를 다스린 24년 동안”이 아닌 “왕 24년”으로 해석한 것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견해에 관한 한 그 正誤를 현전 자료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

만일 창작 연대에 대하여, 첫째 안민가를 창작한 증담의 기사가 경덕왕이 表訓大德을 통해 惠恭王을 얻게 된 紀異譚에 앞서 기재돼 있음을 고려하고, 둘째 경덕왕이 그의 先考인 聖德王의 偉業을 추모한 나머지 聖德王이 왕 10년(711)11월에 人臣으로서 받들어야 할 誠命들을 적은 百官箴을 지어 군신에게 준 것처럼 경덕왕도 그러한 의도에서 안민가를 짓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고려하면, 안민가는 惠恭王 탄생년(왕 17년, 758)전후시기에 창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王權에 도전할 反心을 품은 廉相이 侍中으로 등장한 시기(왕 17년 1월~왕 19년 4월)의 초(이때는 왕당파인 信忠이 上大等으로 있었던 시기)이거나, 아니면 왕의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上大等 金思仁의 時政得失의 極論이 있었던 왕 15년 2월 직후(이때는 왕당파인 金耆가 侍中으로 있었던 시기)가 治理를 강조할 시대 상황으로서는 적절한 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전제왕권을 유지하면서 爲民·愛民政策을 굳건히 밀고 나가는 왕의 밑에 上大等 信忠/ 시중 廉相, 侍中 金耆/ 上大等 金思仁이라는 王黨派/ 反王黨派의 갈등이 접고되면서

16) 趙東 -,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1982, p. 149.

천재지변이 자주 나타남과 아울러 나라 안이 불안해지자 경덕왕은 治國理民에 관한 誠銘書나 治理歌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충담사로 하여금 안민가를 짓게 한 것은 아닐까?

그리하여 충담은 경덕왕의 심중을 적확히 헤아리고서 난국을 극복함에는 君臣이 힘을 합쳐 백성을 攝護하여야 백성도 그에 따라 나라를 사랑하게 된다는 불교의 王論法과 유교의 王道사상을 내용으로 한 안민가를 짓게 된 것일 것이다.

꿈은 어비여 臣은 득수살 어시어
 民은 얼흔 아히고 ㅎ살디 民이 득을 알고다.
 구물스다히 살손 物生 이홀 머기 다스라
 이 사홀 ㅂ리곡 어되 잘더 홀디 나라악 더니디 알고다.
 아으
 君다이 臣다이 民다이 ㅎ늘든 나라악 太平ㅎ니었다.

제 1 행은 類喻의 수사법을 구사하여 君臣을 父母에, 民을 赤子에 비유하고, 거기에 부모의 적자에 대한 사랑(다스림과 돌봄)을 강조하고 있다. 大薩遮尼乾子所說 王論品 第五之一에

王言 大師 彼諸王等何故名王 答言 大王 王者民之父母 以能依法攝護衆生令安樂故 名之爲王 大王 當知 王之養民當如赤子 推乾去濕不待其言 何以故。

라 하여, 왕이란 백성의 부모이니 법에 의하여 중생을 포섭하고 보호하며, 백성 부양하기를 마땅히 갓난 아기와 같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왕이 모든 중생을 보호하는데 내어야 할 마음은 여덟 가지며, 그 가운데 첫째의 “모든 중생을 생각하되 아들과 같이 하는 데”는 두 가지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同經 王論品 第五之三에

王言 大師 行法行王 生幾種心 常能如是護諸衆生 答言 大王 行法行王 於諸衆生八種心何等八種 一者念諸一切衆生如念子想 二者念於惡行衆生如病子想 三者常念受苦衆生大慈心 四者念受勝樂衆生歡喜心 五者念於怨家衆生護過想 六者能於親友衆生覆護想 七者能於資生之中生如藥想 八者能於自身生無我相 大王 當知 念諸衆生如念子想者 起二種心 一者能如父母念子遮護諸惡 二者常於一切衆生不捨慈心。

이와같이 왕이란 모든 중생을 생각하되, 아들과 같이 하여 모든 잘못을 막고 보호해야 하며, 자비한 마음을 늘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大學에서도 “복받은 군자는 백성의 부모라((樂只君子 民之父母)” 라 하였고, 中庸에서도 “서민을 자식같이 아끼던 백성들이 격려된다. (子庶民 則百姓勤) 라 하였으니, 佛典의 王論法에서나 유교의 왕도사상에서는 다같이 왕을 부모에 비유하고, 왕도틀 옳게 펴려면 백성을 자식같이 사랑하며 慈悲心을 언제나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大臣들에 對하여서도 大薩遮尼乾子所說經 王論品 第五之一에서

大王 當知 彼大臣者 代王理政一如王心 憂國忘身不營私務 念護百姓如養双目 隨王所念 如念即辦 不礙不著 修行正道離於非法 隨時隨處不行惱害 正依王命行十善法 不違善行 不違如法 不違如法義 皆能具足 大王 當知 如是名爲轉輪聖王 大臣寶用 令王得受第一勝樂。

大臣은 왕을 대신하여 政事를 하되, 꼭 왕의 마음과 같이 正道로서 政事를 베풀면 왕에게는 그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 하였으니, “臣은 득수할 어시여”라 하여 臣을 慈悲있는 어미로 비유한 詩句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부모인 君臣이 赤子인 백성에게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正道로서 政事를 베풀면 그 결과 백성은 군신에 대한 사랑을 안다는 것이다.

제 2 · 3 · 4 行은 君臣이 백성을 嚮護하고 백성이 나라를 수호하는 데는 먹음이 으뜸임을 강조하고 있다. 管子에서도 “왕은 백성으로서 하늘을 삼고, 백성을 먹음으로서 하늘을 삼는다. (王者以民爲天 民以食爲天)”라 한 바와 같이 굶주리는 백성을 救恤함이 나라를 보지하는 근본임을 강조하고 있다. 임금이 백성을 보호해야 나라가 온전히 지탱될 수 있다는 호국사상은 大薩遮尼 乾子所說經 王論品 第五之一에서도 나타나 있다.

大王當知 王者得立以民爲國 民心不安國將危矣 是故王者 常當憂民如念赤子不離於心

이 글은 왕이란 백성으로 나라를 삼아야 한다는 爲民 · 愛民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제 6 行에서는 나라가 태평할 수 있는 길은 君 · 臣 · 民이 그들의 직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함으로써 얻어진다는 것이다. 論語 顏淵篇에 보면 “임금은 임금 노릇을 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을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을 해야”¹⁷⁾정치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안민가는 유교의 왕도사상과 불교의 王論法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창작된 전제왕권시대의 教導詩歌인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시가의 발상의 바탕을 彌勒思想에 두고 利他的 · 大乘的이라는 용어를 구사하고 있는데, 미륵사상은 결코 利他的 · 大乘的인 것만이 아니다. 그 이유는 彌勒三部經 가운데 菩薩藏에 속하는 것은 上生經뿐이기 때문이다. 안민가의 발상의 바탕이 佛國土 건설의 미륵사상에 있다면, 미륵삼부경 가운데 下生經의 미륵사상이 발상의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下生經과 成佛經은 元曉의 지적처럼 聲聞藏에 속한다.¹⁸⁾ 따라서 안민가의 발상의 바탕은 利他的 · 大乘的인 미륵사상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V. 結

景德王代 忠談師가 왕명에 의하여 지은 安民歌와 그 부대 기술물을 그 시대상황과 결부하여 考究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三國遺事 景德王 · 忠談師 · 表訓大德條의 冒頭에 기술된 “王御國二十四年 五岳三山神等時或現侍於殿庭”은 경덕왕 말기에 나타난 咎徵이되, 경덕왕 통치기간중 한 진의 謀逆亂도 일어

17) 齊景公問政於孔子 孔子對曰 君君 臣臣 父父 子子 公曰 善哉 信如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 雖有粟 吾得而食諸。

18) 第三所攝有同異者 上生經者 菩薩藏攝 餘二經者 聲聞藏攝 所以然者 其成佛經 出長阿舍 下生經 文深淺不同 又說成道 未明應現 依經得益 證小乘果 以之故知 非菩薩藏(元曉, 彌勒上生經宗要)。

나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로 보아, 武烈王系의 專制王政을 비호하던 五岳三神들이 강력하게 중앙집권적 전제정치를 구현하던 경덕왕에게 그의 정책을 비판하고, 당시 王黨派와 反王黨派間的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敎示하기 위해 現侍한 것이 아니라, 惠恭王代에 있을 貴族들의 大反亂으로 武烈王系의 專制王政이 붕괴될 것임을 미리 가르치기 위해 나타난 咎徵인 것이다.

둘째, 景德王이 행한 佛事를 비롯한 여러 治績을 통해 보면, 왕은 신라 中代의 中央集權的 專制王權을 강력히 유지하면서 爲民·愛民의 政治理念을 가지고 施政한바, 왕대에 이르러 신라의 문화는 그 絶頂期를 맞이할 수 있었다.

세째, 忠談師는 경덕왕 때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로서 그의 사상은 郎僧으로서 彌勒思想을 가졌을 뿐 아니라, 권위나 권좌에 대해 무관심하였던 고매한 인격을 소지한 당대의 지성인이었다.

네째, 안민가의 創作年代는 相反된 政治理念을 가지고 권력 장악에 갈등이 심화된 金耆·廉相의 執政時期인 왕 15년(756)이나 왕 17년(758)경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안민가에 나타나 있는 思想은 佛敎의 護國的인 王論法 思想과 儒敎의 爲民的인 王道 思想이다. 따라서 안민가에 나타난 사상을 어느 한 쪽만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창작된 것이라 속단할 수는 없다.

[이 논문은 1984년도 부산대학교 학술 연구 조성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Abstract)

A Study of *Anmin-ga*

Kim, Sŭng Chan

This paper studies *Anmin-ga* and the writings incidental to it in the light of social and political circumstances of the time.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one may interpret the appearances of various mountain gods in the palace garden during the 24 year reign of King Kyongdok were to warn the king that after his death, i. e., during the reign of King Hyegong, the autocratic rule sustained by the Muyol line would be brought to an end by the nobles of the Naemul line.

Second, since King Kyongdok was able and ruled his people with uttermost care and love, his reign was the Golden Age of Silla.

Third, Chungdam-sa, the author of *Anmin-ga*, was a Buddhist monk who had a strong belief in Maitryea as well as a member of Hwarang-do. And he was a typical intellectual of the time.

Fourth, the date of *Anmin-ga* probably is either the fifteenth (756 A. D.) or the seventeenth (758) year of King Kyongdok's reign.

Fifth, *Anmin-ga* reflects both Buddhist and Confucian ideas.